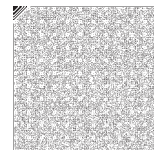


시온 주보

제2316호 2020년 12월 13일(나해)

대림 제3주일(자선 주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염수정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입당송 | 필리 4,4,5 참조

기뻐하여라. 거듭 말하니,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여라.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제1독서 | 이사 61,1-2 ㄱ.10-11

화답송 | 루카 1,46ㄴ-48,49-50,53-54(◎ 이사 61,10 ㄱ. 참조)

◎ 내 영혼이 내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네.

○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내 마음 기뻐 뛰노네. 그분이 비천한 당신 종을 굽어보셨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 ◎

○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분 자비는 세세 대대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미치리라. ◎

○ 굽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고,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네. 당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돌보셨네. ◎

제2독서 | 1테살 5,16-24

복음환호송 | 이사 61,1 참조(루카 4,18 인용)

◎ 알렐루야.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복음 | 요한 1,6-8,19-28

영성체송 | 이사 35,4 참조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힘을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우리 하느님이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우창원 아우구스티노 신부 | 바보의나눔 사무총장

| 기다림, 만남 그리고 나눔

전례력으로 새해를 시작한 지도 벌써 3주나 흘렀습니다. 지난 한 해는 예기치 못했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느끼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구세주 빨리 오사 어두움을 없이 하며, 동정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옵소서”라는 성가 가사처럼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기를 기도해봅니다. 우리는 바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아름다운 마음 자세로 구세주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림 제3주일에는 장미색 제의를 입습니다. 이 제의가 나타내는 색깔의 의미는 엄격한 보속 중에 성탄의 서광을 앞두고 기쁨과 휴식의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대림 제3주일을 지내면서 우리는 회개와 속죄를 통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올바르게,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면 오시는 그분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1독서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싸매어 주며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갇힌 이들에게 석방을 선포하게 하셨다”(이사 61,1)는 말씀을 묵상해보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시며 안식처가 되어주시는지, 그분의 오심이 진

정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지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때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한 성경 말씀이 마치 뜬구름같이 여겨진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분께서는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요한 1,10)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우리와 늘 함께하십니다. 주님과 만남이 외적으로 반드시 드러나지 않는 것 같더라도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림 시기가 특별한 기다림의 시간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의 기다림은 신앙생활에서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도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계속되고, 반복되는 만남일 것입니다.

오늘은 자선주일입니다. 가장 비천한 이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당신 사랑을 ‘올인’하시며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세상을 향한 ‘사랑의 올인’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나눌 때 그 사랑은 더욱 커지고 풍성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땅이 새순을 돋아나게 하고 정원이 싹을 솟아나게 하듯 주 하느님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 의로움과 찬미가 솟아나게 하시리라.”(이사 6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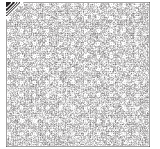


한겨울의 긴 추위와 빙설을 헤치고 복수초가 그 고고한 자태를 드러내면 봄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습니다. 하느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하고 정의로운 시대를 열어놓으려 하십니다. 언 땅에서도 새 싹을 돌게 하듯이 하느님의 의로움과 하느님을 향한 찬미가 모든 민족들에게 널리 펼쳐질 것입니다.

김대한 안드레아 | 가톨릭사진가회



유송자 데레사 | AFI(국제 가톨릭 형제회)



| 더 높은 곳을 바라보아라

제가 속한 AFI(국제가톨릭형제회)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적 삶을 이루는데 일생을 봉헌하기로 서약한 평신도 공동체입니다. 회원들은 교육이나 상담, 사회복지, 사회운동과 사회개발, 의료복지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며 교회와 세상 안에서 다양한 사도직을 수행합니다.

꽤 오래전, AFI 국제생활 체험을 위해서 벨기에 브뤼셀에서 지낼 때, 단체의 국제 비서처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머물던 한 한국 회원과 같이 당시 단체의 국제 비서로 일하고 있던 다른 AFI 회원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추기경 회의를 하셨던 故 김수환 추기경께서도 회의를 마치신 후, AFI 국제 비서처를 방문하셨으므로 우리는 함께 산보를 나갔습니다.

“오, 밤송이 좀 보세요! 아름이 벌어지고 있어요!”

“와! 그러네! 밤알이 떨어지려고 해!”

유럽에는 밤나무가 귀해서 오랜만에 보는 밤송이가 더욱 반가웠던지, 어린아이들처럼 들떠서 외치는 AFI들 사이로, “더 높은 곳을 바라보아라” 하시는 김수환 추기경님의 특유한 저음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김 추기경님의 말씀대로 더 높은 곳을 바라보니, 밤나무 잎 사이로 눈부시게 빛나는 파란 하늘, 먼 곳에 은색 선을 그리며 지나가는 작은 물체가 보였습니다. 코앞에 매달린 밤송이에 홀려서 그 이상 높게도 넓게도 보지 못했던 우리들은 “아! 비행기...” 하며 머쓱하게 웃고 말았습니다.

그 후, 저는 가끔 가슴이 막힐 것 같거나 삶이 답답해질 때, “더 높은 곳을 바라보아라” 하신 추기경님의 말씀을 떠올리곤 합니다. 더 높은 곳이란, 다만 빛나는 은색 줄을

긋고 지나가는 비행기나 파란 하늘이 아니었습니다. 하늘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빛의 근원을 바라보라’고 하신 말씀임을 깨달은 것은 한참이 지난 후입니다.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요한 1,1-5)

해마다 예수님 성탄 날에 봉독되는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있으면 “더 높은 곳을 바라보아라”고 하시던 故 김수환 추기경님의 음성도 함께 들리는 듯합니다.

빛과 생명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며, 하늘보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그 높은 곳이 바로 내 주변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억압받으며, 힘없는 소외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임을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주시도록 간구합니다.

나를 이끄는
성경구절

나 너와 함께 있어
두려워하지 마라

(이사야 41.10)



김경희 아네스 | 가락동성당

'신학생' 사제 지망자 급증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제목만 보더라도 참 흐뭇한 글입니다. 1980년 1월 27일 자 서울주보의 3면 교회 소식란에 눈에 띄는 제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서품일자 결정> “금년도 서울대교구 사제서품 예정자들은 오는 2월 25일 오후 2시 명동대성당에서 김 추기경 집전으로 사제 품에 오른다.”

경갑실(요한), 이기락(다테오), 허근(발도로메오) 3명의 부제가 사제품을 받게 되면 서울대교구의 사제는 187명이 된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대신학교 입학식 때 서울대교구 소속 신학생은 20명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중에 약 10~20% 정도만 사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신입생이 많아야 사제 서품자들도 많은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1980년도 들어서면서 서울 지역이 커가는 동안 지역에 맞게 성당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목자의 부족에서 오는 문제도 컸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직 개발이 안 된 어느 텅 빈 운동장 같은 곳에서도 사제를 파견해서 임시 성당을 마련하고 미사를 시작하면 신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사제를 양성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아래에 있는 ‘신학교 소식’에서 <사제 지망자 급증>이란 제목이 다행스럽습니다. 내용을 보면 1979년에는 서울대교구 사제 지망 입학생이 27명(전체 사제 지망생 72명 중)인데 비해 1980년에는 44명(전체 사제 지망생 103명 중)으로 서울대교구는 물론 전체 사제 지망생 숫자도 꺾은 듯 뛰어났다는 소식입니다. 전체 사제 지망생도 30명 이상 늘

★ 서품일자 결정

금년도 서울 대교구 사제서품 예정자들은 오는 2월25일 오후 2시 명동 대성당에서 김 추기경 집전으로 사제 품에 오른다.

작년 3월 4일 부제품에 오른 경갑실(요한), 이기락(다테오), 허근(발도로메오) 3명이 사제로 서품 되므로 서울 교구 사제 총수는 187명이 된다.

신학교 소식

“금년도 사제지망자 급증”

1. 대신학교 응시자

1980년도에 대신학교에 응시한 120 명의 지원자들 중 교구신학생은 82명 수도회신학생은 21명이며 사제 지망자가 아닌 평신도, 수도자는 17명이라고 한다. 교구 신학생들중에서 서울 교구에서는 44명의 학생이 지원하였는데, 그들 중 소신학교 출신이 11명이고 나머지 33명은 예비신학생들 및 일반고교 출신으로 사제지망을 한 학생들이다. 한편 작년도 지원자들은 총 72명으로 일반학생을 제외한 63명의 사제 지망생중 서울대교구 소속이 27명이었다. 지원자들의 분포를 간단히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80년도 (79년도)
응시자 총수	120명 (72명)
서울 교구 신학생	44명 (27명)
성신고교(소신학교)출신	11명 (9명)
일반 고교 및 예비신학생 출신	33명 (14명)

었고, 서울대교구도 14명이 더 늘은 것으로 나옵니다. 유럽 교회에서 사제 지망생이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오히려 1980년 이후에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1980년에는 일반 고교 및 예비신학생 출신의 숫자가 소신학교 입학생보다 3배가 많습니다. 새로운 성소 양성의 필요성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서울대교구의 사제 지망생과 매년 사제 서품 숫자는 1980년 이후부터 급증하는데, 이는 서울대교구의 폭발적 성장과 비례하고 있습니다.

1984년 제가 서품을 받았을 때만

해도 보좌신부가 있는 본당은 많지 않았습니다. 당시 통계에 따르면 사제 한 명이 4~5천 명을 사목해야 하는 어려움이었습니다. 또한 성소후원회는 기도 봉사와 함께 신학생들이 편안하게 공부에만 전념하도록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데, 아쉽게도 성소후원회가 결성된 본당은 전체 본당의 50% 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오늘날 성소후원회의 발전은 성소의 중요성에 대한 자각과 함께 많은 신학생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교사를 받은 교회에서 외국에 선교사를 파견할 정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아직 한국 교회가 그래도 성소가 많다고 하지만 언제까지 상승곡선을 그릴 수 있을까요? 인구 감소세가 뚜렷한 우리나라는 이미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성소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12월 13일)은 '자선 주일'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자선을 베풀도록 1984년부터 매년 대림 제3주일을 '자선 주일'로 지내기로 정했습니다. 이날은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불우 이웃들에게 성탄의 기쁨과 희망을 주기 위하여 2차 헌금을 실시합니다. 자선 주일 담화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교회발표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운동

2020년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00년 12월20일 이내수 아우구스티노 신부(38세)
- 1953년 12월17일 이선용 바오로 신부(56세)
- 1994년 12월14일 구전희 바르톨로메오 신부(73세)
- 2013년 12월20일 김진규 다니엘 신부(36세)

대전교구 보좌주교에 한정현 신부 임명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대전교구 한정현 스테파노 신부(만 49세, 2000년 사제 수품)를 대전교구 보좌주교와 모조트코리 명의주교로 임명하셨다고 주한 교황대사관이 발표했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는 6.25 전사자와 유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문의: 1577-5625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가톨릭 교리상식 서울주보에 물어보세요!



더 자세한 내용 QR 스캔 ▶

참여기간 11월 28일(토)~12월 31일(목)
참여방법 서울주보 홈페이지(cc.catholic.or.kr) 접속
-> 홈페이지 하단 이벤트

교구장알림

가톨릭예술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2021 새해특강: 현대미술에서 종교를 만나다'

가톨릭예술아카데미에서는 종교와 현대미술의 만남을 주제로 새해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문의: 02)751-4107, 4110 홍보위원회
대상: 20대 이상 천주교 신자 및 일반인(신청자 300명)
회비: 4만원(4주 일괄신청) / 신청: 온라인 신청(네이버 카페 '가톨릭예술아카데미' <https://cafe.naver.com/catholicartstory>)
때: 2021년 1월6일~27일 매주(수) 19시30분~21시
곳: 줌(Zoom) 어플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강좌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 '가톨릭예술아카데미' 참조

1월6일	빛을 따라 프로방스로 내려간 화가들 '사갈과 마티스를 중심으로'	강정모 (아츠앤드레블 대표)
1월13일	초월을 향하여 '조각가 김중영'	박준호(김중영미술관 학예실장)
1월20일	현대미술의 풍경 '동시대의 미술'	김찬용(전시해설가)
1월27일	추상미술이 된 성서 칸딘스키, 뉴먼, 로스코	하영유 수녀 (성심수녀회 수녀)

갤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02)727-2336

임정열 십자가전: 1전시실
조영선 목상전: 2, 3전시실
전시일정: 12월16일(수)~21일(월)

12월 자살유가족을 위한 월례미사 안내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모든분들
때: 12월19일(토) 10시30분 매월 세번째(토)
곳: 가톨릭회관(명동) 4층 413호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집전: 유경준 주교 / 유가족 면담 및 문의: 02)727-2495

시복시성 기원미사

이달의 하느님의 중 '김장복'
때: 매월 셋째주(화) 12월15일 오전 11시(158회)
곳: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B2 성 정하상 기념경당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1254차 미사(내 마음의 복벽 본당 갖기) 미사

때, 곳: 12월15일(화) 19시, 명동대성당 / 02)727-2420
이번 주 기억할 본당: 평양교구 대신리 본당 · 관후리 본당 / 미사 후에는 한반도 평화와 복벽본당을 위한 묵주기도를 봉헌합니다

영성심리상담교육원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진로상담
곳: 서울대학교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
지구별 상담소: 4성북지구(노동사목회관), 5지구(노원성당), 9지구(천호동성당), 13지구(삼성산성당), 17지구(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 02)727-2139 / (월~금) 10시~18시
전화상담: 02)727-2137 / (월~금) 10시~17시(점심시간 12시~13시)

직원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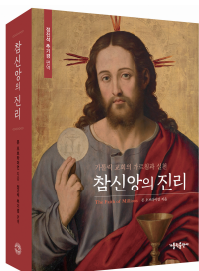
우아동 예수고난회 명상의집 사무실 직원 모집

대상: 컴퓨터 능통한 분 / 문의: 02)990-1004

서울대학교 특수사목사제관 직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 / 분야: 주방 근무자 0명(계약직)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 서류: 응시원서(서울대학교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각 1부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통보)
우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74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무처) 및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12월16일(수)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 문의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도미니코 수도회	수시	수도원(강북구 삼양로139나길 16-8)	010-3012-2616 조성하 신부
돈보스코 여자 재속회	수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5 살레시오회 3층	0505-1306-1505
올리베따노 성 베네딕도 수도원	수시	수도원(경남 고성)	010-5301-1319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12월19일(토) 14시	수도원(개화동)	010-3800-1579
프란치스코 전교 봉사 수녀회	12월19일(토)	가톨릭회관 526호 아프리카 잠비아선교후원회	010-3679-7198 강피아 수녀



참신앙의 진리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과 실천

존 오브라이언 지음 | 정진석 추기경 편역

1세기부터 지금까지 여러 개신교를 포함하여 많은 그리스도교가 생겨났다. 그럼 여러 그리스도교 중에서 과연 참된 그리스도 교회란 어떤 것일까? 이런 궁금증을 해소하고 가톨릭 교회가 왜 참된 그리스도교인지 설명하며, 교리 전반에 관해 다루는 책이 출간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에 관해 오해하는 부분까지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그 책은 바로 《참신앙의 진리》다. 이 책은 마음을 터놓고 편견 없이 진리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교리를 바라본다면 가톨릭의 종교관이 이치에 맞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가톨릭출판사 | 796쪽 | 2만7천원 | 문의: 02)6365-1851(www.catholicbook.kr)

인준단체 알림

모임

제주교구 성지순례 3박4일(글라셋선교수도회)

때: 매일 출발 / 회비: 32만원
내용: 성지 6곳 순례 및 미사·성사(글라셋선교수도회 신부 동반) / 문의: 010-5150-2625

효순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

효순단식으로 몸 속에 쌓인 독소·노폐물·체지방을 없애고 성체세미나를 통해 성체의 은총을 체험하며 영육간의 건강과 자연치유력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피정 지도: 노경덕 신부(본원) / 문의: 010-9363-7784 신 글라라 때, 곳: 12월18일~21일·2021년 1월8일~11일·1월15일~18일·2월19일~22일·2월26일~3월1일, 성 도미니코수도원(주최, 수유동) /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어르신 사발 피정 '죽음-웨다임(선종)' 강의·미사

곳: 노인복지위원회 성도노인쉼터(주최, 종로3가 창덕궁 앞) / 문의(접수): 02)766-7370

죽음(선종)	12월22일(화) 10시~13시
심판·지옥·연옥·천국·성체·성모님	매일 셋째주(화) 10시~13시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연말연시·해넘이·해돋이피정	12월31일~2021년 1월3일
한라산눈꽃 피정	2021년 1월8일~10일, 1월23일~25일, 1월29일~31일, 2월5일~7일, 2월20일~23일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84차	12월25일(금)~2021년 1월2일(토)	문의: 061)373-3001, 010-3540-9001
제85차	2021년 1월22일(금)~30일(토)	
제86차	2021년 2월5일(금)~13일(토)	

음악치유 피정 및 음악심리상담 초급 과정

곳: 한국음악치료연구소(전철 3호선 대청역)
문의: 010-4252-1165, 02)575-7661 가톨릭성음악 클래식기타회(지도 김경희 신부)

음악치유 피정반	2021년 1월8일~22일 매주(금) 13시~17시	회비: 12만원
음악심리상담사 자격증반	2021년 1월14일~28일 매주(목) 13시~17시	회비: 15만원

교육

성물조각·묵주·목세공 교육(가톨릭목공예)

카페: cafe.naver.com/cmc04 / 문의: 010-5234-5044

캘리그라피 수강생 모집(가톨릭글씨문화연구회)

블로그: pc21s.blog.me / 문의: 010-5313-6554(문자)

2021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 과정

내용: 가톨릭 신학 26과목 / 문의: 02)745-8339
원서접수: 2021년 2월10일(수)까지 우편접수 가능
홈페이지: ci.catholic.ac.kr(원서 다운 가능)

바오로딸 성경학교 학생 모집

과정: 입문·중급·성바오로 신학영성 중 선택
방법: 우편과 이러닝(동영상 강의) 성경공부
원서: http://uus.pauline.or.kr / 2021년 1월31일까지 접수
문의: 02)944-0819~24, 010-5584-8945

원어로 읽는 성경 기초반(히브리어·히랍어)

때, 곳: 1월~12월 19시~21시(주1회 2시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 회비: 3개월 30만원
문의: 010-4598-6912 김성태 신부(프란치스코회)

커피바리스타 교육(사)하랑·가톨릭바리스타협회

교육과정: 에스프레소, 라떼아트, 홈바리스타, 창업, 로스팅, 자격증(주1회·12주) / 교육문의: 010-9040-8306, 010-2511-6845(http://club.catholic.or.kr/barista)
담당: 이경훈 신부(coffee master)

2021학년도 가톨릭관동대학교 정시 모집

모집기간: 2021년 1월7일(목)~11일(월)
의과대학, 공과대학, 사범대학, 의료융합대학, 항공대학, 사회과학대학, 미디어예술대학, 관광스포츠대학
2022학년도 가톨릭지도자추천전형: 의학과, 간호학과 모집 / 문의: 033)649-7000

2021학년도 교회음악대학원 신입생 모집

석사과정(5학기) / 오르간, 작곡(CCM 작곡), 합창지휘전공 석사학위 및 가톨릭교회 인준의 고급교회음악가 자격증 수여
원서접수: 2021년 1월4일(월)~15일(금) / 전형일: 1월29일(금), 최양업홀(전철 2·5호선 충정로역, 1·4호선 서울역 하차)
문의: 02)740-9883(http://songsin.catholic.ac.kr/music)

2021년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교회음악가자격증 과정 모집

가톨릭교회 인준의 초·중급 교회음악가 자격증 수여(구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콘서트바토리 과정)
원서접수: 2021년 1월11일(월)~23일(토) / 개강: 2021년 3월
대상: 교회음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을 통해 가톨릭 교회 인준의 교회음악가가 되고자 하는 자
교육방법: 이론과목 수강 및 연주를 위한 실기레슨, 토요 미사를 통한 실제 전례중심 교육
곳: 최양업홀(전철 1·4호선 서울역, 2·5호선 충정로역)
문의: 02)393-2213, 4(http://www.casm.site)

인천교구 자혜의 샘(복합선교기독교공동체) 교육

곳: 부천시 송내동 366-5 자혜의 샘
문의: 010-5454-1871, 010-3248-9705
교육관에서 매일 미사와 묵주기도 100단이 있습니다

월	둘째·넷째주 하느님 자비 피정		
화	성경 말씀 아카데미		
수	전인적 치유 피정	목	찬양 치유 피정
금	성시간과 함께하는 철야 기도회		
일	찬양과 함께하는 신앙 아카데미		

가톨릭교리신학원 신입생 모집

가톨릭 신학의 체계적 교육 / 접수: 2021년 1월19일(화)까지
문의: 02)747-8501(ci.catholic.ac.kr)

교리교육 학과	(월~금) 주간(2년)	세례 3년 이상 견진자 만 70세 미만, 고졸 이상 선교사(교리교사) 자격증 수여
종교교육 학과	(월~금) 야간(2년)	
신학심화 과정	(화~목) 주간(1년)	교리·종교학과 졸업생, 본원 통신과정 졸업생, 만 70세 미만, 고졸 이상

예수회센터 겨울방학 특강(2021년 1월 개강·6주 과정)

안전한 강의환경을 위해 수강 인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밖의 다양한 강좌에 관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s.kr)

몸 신학: 위기와 쇠신의 기로에서	(월) 14시~16시	김혜숙박사
칼 융의 분석심리학과 영성	(화) 14시~16시	김경택신부
구약성경 아가페: 여호수아·2열왕기·위대하시고 새로운 하느님	(화) 19시30분~21시	주원준박사
영성의 향기: 현대 영성의 주요 주제들	(수) 14시~16시	심종현신부

신구약 성경통독 / 문의: 010-9401-9374

때, 곳: 2021년 1월15일~23일(8박9일), 상지 피정 집(주최)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강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복음화학교 142기 온라인 개강

복음화학교 142기 1단계 온라인 유튜브 수업(비공개)에 초대합니다 / 문의(수강신청): 02)2096-0410, 0411 새천년복음화사도직협회 복음화학교 교육국
때: 2021년 1월11일(월) 14시·1월14일(목) 19시

미사

2021년 1월 가정선교회 행사

문의: 010-2367-2297, 010-6281-8626, 02)777-1773 대표

첫 토 성도 신심미사	1월2일 14시~16시30분,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회비 없음	한철호 신부
성가정 영성 1일 피정	1월6일 9시30분~16시30분,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회비 없음, 김밥 판매, 식수 준비	한철호 신부 이현주 회장

인사

볼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교육수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부부, 가족, 여성 / 첫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전화상담 가능)

성가정입양원(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 문의: 02)764-4741~3

국내입양 상담 및 입양 전까지 아동을 사랑으로 돌볼 위탁부모를 모집합니다 / www.holyfcar.or.kr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 (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절두산순교성지 희년 상설고해소 운영

절두산순교성지에서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 기간(11월~2021년 11월27일)동안 희년 상설고해소를 운영합니다
때, 곳: (화~토) 10시~12시·15시~17시, 절두산순교성지 교육관 홍보실 / 문의: 02)3142-4434

응암동성당 '요셉 추모와 축복의 벽' 패 신청

추모패·축복패 접수 / 사용 기한: 무기한(단, 20년 이후 재건축 등의 상황 변화에 따라 기간 변동될 수 있음)
대상: 고인(추모패), 세상을 살고 있는 교우·비신자 등(축복패) / 사용료: 1인쇄 100만원, 2인쇄 150만원
해택: 명절, 위령의날, 매월 합동 위령미사, 생미사 봉헌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 문의 / 문의: 02)2021-2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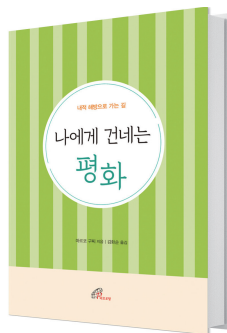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상담팀

언어상담, 매체상담(모래놀이치료·미술치료), 종합심리검사 / 대상: 만 9세~24세 청소년
운영: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서울시 위탁)
회비: 언어상담 20회 10만원, 매체상담 20회 60만원, 종합심리검사 15만원 / 문의: 02)2051-3743
카카오톡 채널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상담팀' 검색 후 채널 추가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관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문의 바랍니다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여성의 전화 상담

여성 전화상담 (월~금) 10시~16시 / 문의: 02)990-9366
대면상담 우울·불안, 가족갈등, 대인관계 / 문의: 02)990-9360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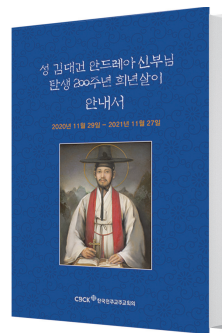


신간

나에게 건네는 평화

마르코 구찌 지음
바오로딸 | 328쪽 | 1만5천원
문의: 02)944-0944

혼란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삶에 대한 성찰과 함께 이론적·명상적, 심리적, 영적 훈련을 통해 참 자아를 찾도록 이끄는 책이다. 복음적인 가치관과 멀리 떨어진 채 혼란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삶에 대해 성찰하고 참 자아를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한다.



신간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살이 안내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 120쪽 | 2천원
문의: 02)460-7582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을 맞아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신 김대건 신부님의 영성을 되새기고자 희년살이 안내서를 마련하였다. 희년 기도, 김대건 신부님의 시간과 함께 신부님의 신앙과 사랑을 묵상하는 9일 기도, 전대사 수여 조건 등을 수록하였다.



영화

파티마의 기적

상영관: 전국 CGV
개인 및 단체 관람 문의: 070-8670-2617
단체 할인 가능(20명 이상: 7천원으로 관람, 만 65세 이상: 5천원으로 관람, 평일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모두 7천원 적용)

파티마 성모 발현 103주년 기념 영화 <파티마의 기적>이 12월3일(목)에 개봉했다. 1917년 포르투갈의 작은 마을 파티마에서 일어난 성모 마리아 발현, 그를 목격한 세 명의 아이들의 놀라운 만남과 위대한 증언을 담았다. 서로에게 따스한 위로가 필요한 현재, 모두에게 특별한 희망을 선물할 것이다.



영화

언플랜드

개봉일: 12월17일(목), 전국 영화관
문의: 010-9228-3229 영화사 오원 양종인

영화 <언플랜드>는 실존 인물인 주인공의 이야기를 통해 낙태 시술의 비인간성을 목격하고 그 불편한 진실을 대면하게 해 준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화의 메시지를 통해 건전한 도덕과 양심의 감각을 회복하고 가장 약하고 방어수단이 없는 인간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며 이 영화 관람을 적극 추천합니다.”(염수정 추기경 추천사 중)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성탄 축제

명동, 겨울을 밝히다

명동, 겨울을 밝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성탄 축제
유튜브 채널 <CPBC TV>와 FM105.3MHz cpbc라디오에서 만나보세요

2020.12.24 유튜브 Live 스트리밍 18시~21시

축복의 콜센터

-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따뜻한 사연들을 함께해요
- 성직자 애장품 경매
- 특별 게스트의 노래 선물

2020.12.25 유튜브 Live 스트리밍 18시~21시

수고했어 올해도

- 수고했어 2020년, 반가워 2021년, 청년들의 희망 토크
- 온라인 마켓과 함께하는 성탄의 기쁨
- 명동성당에서 듣는 특별한 연주

2020.12.25 유튜브 Live 스트리밍 14시~17시

전국나눔자랑

- 희망 나눔에 커지는 기쁨, 자랑해봐요!
- 성직자 애장품 경매
- 사제들이 전하는 따뜻한 나눔 성탄

- 12월 24일 -

유튜브 Live 스트리밍 18시~21시

축복의 콜센터

- 1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따뜻한 사연들을 함께해요
- 2 성직자 애장품 경매
- 3 특별 게스트의 노래 선물

- 12월 25일 -

유튜브 Live 스트리밍 14시~17시

전국나눔자랑

- 1 함께 나누면 커지는 기쁨, 자랑해봐요!
- 2 성직자 애장품 경매
- 3 사제들이 전하는 따뜻한 나눔 성탄

- 12월 26일 -

유튜브 Live 스트리밍 18시~21시

수고했어 올해도

- 1 수고했어 2020년, 반가워 2021년, 청년들의 희망 토크
- 2 온라인 마켓과 함께하는 성탄의 기쁨
- 3 명동성당에서 듣는 특별한 연주

❖❖ 기부 진시 ❖❖

명동성당 종합계획 2단계 기금

(11월 16일 ~ 12월 6일 : 17,800,000원)

누계 : 1,883,754,758원

이 정 환 : 10,000,000원	이 중 구 : 2,000,000원
한 일 석 : 1,000,000원	안 선 : 1,000,000원
익 명 : 900,000원	김 호 순 : 700,000원
명 : 500,000원	장 현 선 : 500,000원
도 순 남 : 500,000원	권 민 지 : 300,000원
송 문 현 : 200,000원	김 진 환 : 100,000원
익 명 : 100,000원	

기부 진시에 참여해주신 신자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명동성당의 내일을 위하여 봉헌 해주신 신자분들의 정성은 소중히 기억될 것입니다.

· 기부 문의 : 본당 사무실 ☎ 774-1784
본당 사무장 ☎ 010-9072-5883

《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

본당에 납부하신 교무금, 감사헌금, 성소후원금, 엘리사벳 장학회 후원금은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납부자 명의**로만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납부일 기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을 **‘본당 사무실’** 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 미작성 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및 성당 사무실을 통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므로 필히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동의서를 작성·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지참 !)

① 납부자의 성명과 주민번호가 일치하는지

12월 27일(주일)까지 성당 사무실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2월 31일 이후에는 국세청으로 자료 이관돼 성당 사무실에서는 정정이 불가하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② 납부자 외 다른 세대 구성원의 이름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면 **12월 27일(주일)까지 본당 사무실로 내방하시어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유선상으로는 납부자 변경이 불가**합니다.

③ 은행을 통해 교무금을 자동이체 하고 계신 경우

12월 27일(주일)까지 2020년도 납부내역을 확인

해 주십시오. 은행 납입분은 본당으로 내역이 넘어 넘어오는 데 2~3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12월 27일(주일) 안으로는 20년도 교무금을 완납해 주셔야 하며, 납입자 성명을 기입하지 않으신 경우 전산 장애분으로 납입돼 연말정산 자료에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

교무금 책정·납부 및
연말정산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 제출 안내

한국 천주교회의 상징인 명동대성당은 현재 긴급하지 않은 비용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긴축정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주일헌금과 신자들의 의무 봉헌금인 교무금만으로 운영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10월 1일 기준, 본당 19,305세대 중 2,970세대만이 교무금을 책정하셨고, 이는 전체 대비 15.3%에 불과합니다. 교무금을 충실히 내는 것은 건전하고도 올바른 신앙생활의 표현이자 하느님 자녀된 우리 믿는 자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느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금액이라도 정성껏 봉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교무금 책정을 못 하신 교우 분들께서는 본당 사무실로 내방하시어 책정·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행에서 자동이체 하시는 경우 교무금 책정을 먼저 하고 이체하셔야만 장애(납부자 확인불가)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부족한 본당 재정 확충을 위해 교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본당 사무실과 국세청간소화서비스를 통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필히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를 성당 사무실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하신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는 작성일 기준 5년까지만 유효합니다.

※과년도(2017년~2019년)에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를 작성·제출하신 분들은 제외

※2016년에 작성·제출하셨던 분들은 다시 작성·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보다 자세한 안내는 본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개인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동의서 관련’ 참조

◎ 주일 미사 참례의 의무에서 제외되는 경우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는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있기에 미사에 참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집에서 방송 미사, 묵주기도, 성경 봉독(말씀 전례), 선행 등으로 미사참례 의무를 대신합니다.

-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발열, 기침, 인후통, 숨 가쁨, 감기, 기관지염, 폐렴 같은 호흡기 증상과 설사, 근육통, 피로감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 최근 2주 이내에 해외여행력이 있는 경우
- 고령자(65세 이상),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과 같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건강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면역력이 약한 초·중·고등학생



774-1784(대)
753-1784(FAX)

본당 연방회
010-6375-1784

진주교시울대교구 주교좌명동대성당

주 임 조학문(바 오 로) 신부
수석부주임 이길재(베 드 로) 신부
부 주 임 손태진(바 오 로) 신부
부 주 임 심승우(마르티노) 신부
부 주 임 유영주(세례자요한) 신부
보좌 김주신(멜 키 올) 신부

◎ 명동대성당 평일미사 시간 재편 (11월 30일부터 적용)

요 일	미사시간
월요일	07:00, 10:00, 18:00
화~금	07:00, 10:00, 18:00, 19:00
토요일	07:00, 10:00, 18:00, 19:00(늘푸른청년)
일요일	7:00, 9:00(영어), 10:00, 11:00 12:00(교중) 16:00, 17:00, 18:00, 19:00(청년)

※상기 모든 미사는 '대성전'에서 봉헌됩니다.

※토요일 오후 6시·7시 미사는 '주일미사'입니다.

※주일미사 참례자를 위한 지하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원하시는 분들은 인적사항을 작성하실 때
'전체 차량번호'를 꼭 적어 주십시오!

※성당 개방 시간 ☞ 월~토 : 09:00 ~ 20:00

☞ 일요일 : 06:00 ~ 20:00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미사 참례 지침

12월 8일(화)부터 3주간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과 송출을 위한 참여 인원을 '수도자·명동 교적자에 한해 15명으로 제한'합니다.

- 사무실 내방 접수(09:00~17:00)만 가능합니다.
- 전화 문의 시 신청 가능하였어도 선착순 내방으로 접수를 받기 때문에 사무실 도착하셨을 때 원하시는 미사의 참석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및 온라인 신청 불가)
- 평일미사 참석은 일주일에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 평일과 주일, 미사 참석을 사전 접수하신 분들께서는 미사 시작 10분 전까지 입당하셔야 합니다.
- 평일미사 참석 신청은 '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7시 미사부터 그 다음 주 화요일 미사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주일미사 참석 신청은 '목요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 본당 사무실 업무시간 임시 조정 (12월 8일부터 적용)

요 일	근무시간	비 고
화~금	09:00~19:00	평일(화~금) 점심시간
토요일		[12:00~13:00]
일요일	07:00~20:00	사무실 폐문

◎ 자선 주일 2차 헌금

대림 제 3 주일이자 자선 주일인 오늘은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불우 이웃들에게 성탄의 기쁨과 희망을 주기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대림 시기(11월 29일~12월 23일) 판공성사

※ 대림 제 1 주일부터 보신 고해성사는 판공성사로 간주됩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올해는 성탄 집중판공이 없사오니 12월 23일(수)까지 아래 안내된 고해성사 요일과 시간을 참고하시어 판공성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성사표는 배부하지 않기로 하였으니 성사를 보신 후에는 교적에 성사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내방 또는 유선으로 사무실에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요일	고해시간	고해장소
화~금	11:00 ~ 18:00	상설고해소
토요일	11:00 ~ 19:00	
주 일	10:00 ~ 19:00	

※고해성사 휴무 : 12월 24일(목)~2021년 1월 1일(금)

◎ 성탄봉헌금 접수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며, 성당 안과 마당에 마련될 구유와 제대 트리, 꽃 장식을 위한 '성탄봉헌금'을 접수합니다. 뜻있는 분들께서는 본당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도 교무금 책정 및 납입

어려운시 중에도 2020년 한 해 동안 정성껏 교무금을 봉헌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정산하지 못하신 분들은 가능하신대로 교무금을 납부해 주십시오. 이어 2021년도 교무금 책정을 하시는 분들께는 본당 신년 달력과 가정기도문 책자를 드립니다.

◎ 명동대성당 방호원·미화원 모집

·대상 : 세례 받은 지 3년 이상된 신자로서 시설물 관리 및 청소 담당 계약직 방호원 1명
(시설물 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및 유경험자 우대)
청소 담당 계약직 미화원 1명

·접수 : 12월 20일(주일) 오후 6시까지

본당 사무실 방문 및 우편 접수

※제출하실 서류는 본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전화문의는 정중히 사양합니다.

《 우리들의 정성 》

- 교무금 (11/30-12/6).....33,329,000
 - 대림 제 2 주일 헌금.....13,452,000
 - 감사헌금 (11/30-12/6).....3,416,000
- 고 니콜라오 / 김 루시아 / 김 소화데레사
김 토마스모어 / 남 마티아 / 서 세실리아
서 안드레아 / 성 데레사 / 신 라파엘라
신 레오니아 / 이 율리아 / 임 데레사
임 사무엘 / 장 파비올라 / 정 로사리아
조 마리아말레나 / 익명(4)